

성평등 책이

어린이청소년

유해도서?

#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일 시 : 2023. 8. 1(화) 14:00 ~ 16:00
- 장 소 : 내포혁신플랫폼 M1 회의실

투 투 회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책이

유해도서?

#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2023. 8. 1.(화) 14:00 ~ 16:00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홍성군 흥복읍 흥예공원로 20

경과보고  
충남 지역 성평등 도서 관련 현황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제 1  
퇴행하는 성평등, 민주주의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제 2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안찬수(비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토론 1  
손보경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토론 2  
서현주  
다음북클럽

토론 3  
김용실  
어린이책시민연대

토론 4  
황지영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토론 5  
정재영  
홍성YMCA 사무총장

토론 6  
충남교육청

현재 토론  
이우 마무리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문의 | 010. 4132. 1413

## 토론회 취지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된 상황에, 충남의 공공도서관(지자체, 교육청)에 있는 성평등 도서가 수난을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들며 ‘성평등’ 도서가 어린이 청소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유해도서’ 라는 책들은 2019년 나다움어린이책 선정도서 134권을 모두 포함하며, 페미니즘 관련 도서만이 아니라 ‘마리 퀴리’ (웅진주니어), ‘이태영’ (비룡소) 등 위인전과 ‘평화그림책1-꽃할머니’ (사계절)처럼 위안부 피해 여성의 구술사를 바탕으로 한 책도 있다.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성소수자 표현을 삭제한 개정 교육과정은 성인지 감수성과 다양성 교육에 대한 거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공공도서관을 향한 ‘금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학문·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평등 도서를 둘러싼 현 상황의 문제점, 원인과 대안을 짚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진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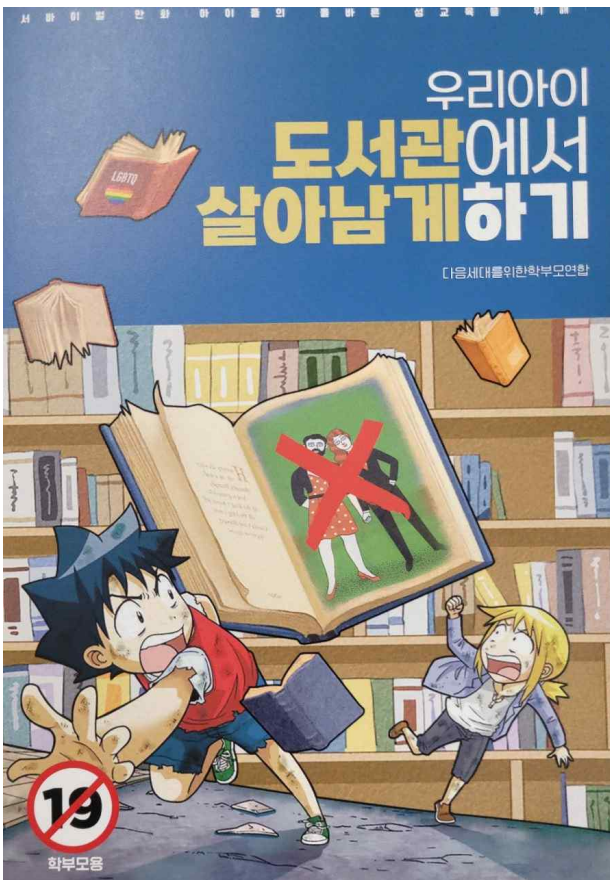
시간	내용		비고
[사회] 장규진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14:00~14:10	10'	경과보고	충남지역 성평등 도서 관련 현황
14:10~14:50	20'	발제(1)	퇴행하는 성평등과 민주주의
	20'	발제(2)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14:50~15:00	10'	휴식	
15:00~15:45	45'	토론(1)	손보경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토론(2)	서현주 (나다움어린이책선정위원)
		토론(3)	김용실 (어린이책시민연대)
		토론(4)	황지영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토론(5)	정재영 (홍성YMCA)
		토론(6)	(충남교육청)
			[좌장]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15:45~16:00	15'	전체 토론 이후 마무리	

## 성평등 도서 관련 충남지역 현황

유내영(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집행위원장)

### 1. 일자별 경과

- 5월 16일. 충남차제연으로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대'가 도서관으로 보내는 홍보물 배포에 대한 시민제보가 들어옴.



우리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하기

부모님들께

1. 지금 이 내용을 다른 학부모님들께 전해주세요
2.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에 위와 같은 책들을 확인하고 유해한 도서는 볼 수 있도록 권해주세요
3.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갖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4. 상담문의: 다음세대불위험학부모연대 (070-7797-4482)
5. 후원: 우체국 102152-01-008434

(예금주: 다음세대불위험학부모연대)

지역별 도서관에 비치된 문제도서 목록

제목 / 도서관	안양/안양각도	고양/고양2가도	동원	수원/수원각도	광명/광명각도	오남	미사	나들
홍익의 그림자	1/0	1/0	1	0/0	1	1	1	1
어디로 날지는 바람	1/1	1/0	1	1/0	0	0	1	2
아름답고 단정	1/0	0	1	0/0	0	1	1	1
우리가 사는 세계	0/0	0	1	0	0	0	1	1
100을 위한 별자리	0/0	0	0	0	0	0	1	1
이웃의 할아버지	2/0	0	0	0	0	2	2	3
생크림 시집한 나뭇잎	1/0	1/0	1	0	0	1	1	1
소년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1/0	1/0	1	0	0	0	2	3
소녀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1/0	1/0	1	0	0	1	2	2
나를 돌아봐 주는 나뭇잎	1/0	1/0	0	0	0	1	1	1
청소년 용기 단문집	0/0	1/0	0	0	0	0	1	1
Girl's talk	0/0	0	0	0	0	1	1	2
사토기 내 몸 사랑살면서	1/1	1/1	1	0	0	1	0	1
자꾸 마음에 불편다면	0/0	0	0	0	0	1	1	1
만생 내 이별은 페미니즘이야	1/0	1/0	1	0	0	1	2	1
나의 첫 번디 수업	1/0	1/0	1	0	0	1	2	2
소년 살치고 달리고 생각하라	1/0	1/0	1	3/1	0	1	1	1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1/1	1/0	1	1/0	1	1	1	1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1/1	1	3/1	0	0	1	0	2
만생 (8권)은 페미니즘이야	1/0	1/0	1	3/1	0	0	0	1
외계인소년, 원서인소년	1/0	1/0	1	0/0	0	1	1	1
이별은 페미니스트	1/0	1/0	1	0	1	1	1	1
누가 진짜 영웅이야	1/0	0	1	1/0	0	1	0	1
성평등 도서 (94권)	26/5	22/1	26	7/2	5	39	62	62
현대도서 (260권)	100/1	41/5	75	11/4	13	57	104	123
페미니즘 도서 (336권)	127/9	78/4	93	6/5	14	216	328	346

# 1 초기성애화에서 살아남기

"세스를 하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

성적 조기/년 성적 중립을 갖도록 해주는 책을

### 1. 사춘기 내용 사용 설명서

성숙할 것 같아도 사실은 아직 어린 아이와 다를 바 없어. 남자로 여자로 바뀌는 목격자들은 한 걸음도 건넌 적이 없다. 사춘기 초반엔 행복 호르몬이 활발 분비되어 스트레스 없이 놀러 놀러 할 수 있거든. 자살을 하면서 내 몸을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가늠이 없게 느끼지 않을까. 사춘기 초반엔 자살은 물론이요, 성관계 경험 가늠을 하는 거야. (116p)

"서로의 몸을 안아 해줘야 할 때" "다른 심기를 놓아"

## 2.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

생리를 막아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피임약을 먹는 거야. (136p)  
 피임약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 (140p)  
 피임약을 주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140p) 둘 중에 하나에 대해 이야기 해줄게.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하게 할 수 있는 거야. (140p)  
 생리, 피임약, 그리고 임신. 생리를 잘 관리하면 좋겠어. (140p)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작아지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122p)  
 가슴이 작아지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122p)  
 가슴이 작아지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122p)

피임약을 피하면 임신할 수 있을까? (140p)  
 피임약을 피하면 임신할 수 있을까? (140p)  
 피임약을 피하면 임신할 수 있을까? (140p)

"이러한 것만으로도 아이와 사랑"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면 서로의 몸을 안아 해, 더 할 때 더 할 거기를 놓아" "무인 불의 성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성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아무런 거를 느끼지 않는다"

# 3 동성애, 성평등에서 살아남기

"갈업은 죽음을 좋아해, 그리고 이해가 없어!"

###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엄마가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해요"  
 "엄마는 나를 가려서 사랑해"  
 "이처럼 가족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로이 대화해요?"

자라나면 어떤 남자아이들은 다른 남자들, 어떤 여자아이들은 다른 여자들,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따로 있는 거야. (140p)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 "세상의 단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겠어. (140p) 다양한 생각과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것에서 '성 평등'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가짜'인 거야. (140p) '가짜 평등'이란 말이 없어야 진짜 평등이 가능해. (140p)

## 1. 생각이 큰 인문학 - 성평등

"남자는 도둑이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둘 다 지니는 사람도 있어요. (140p) 남자를 위한 '남자'도, (140p) 여성을 위한 '여성'도, (140p) 남자와 여성을 가리지 않고, (140p) 사람이란 무엇이고, (140p) 어떻게 살아야 할지, (140p)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140p) (140p)

"물리학 그거야" "엄마가 초보인데 내 그림자에 남자애가 있어. 그냥 차라, 물리는 게 아니겠어. (140p) 만약 그 그림자가 진짜 내 그림자라면 가만히 있어 물리는 동안 내 남자 애들이랑 놀라!"

# 2 페미니즘에서 살아남기

"남자 아이를 위한 8가지 강간 예방법"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남여의 대립 갈등을 부추기는 책을

### 1.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여성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 2의 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털을 미는 사람과 밀지 않는 사람" (60p.)  
 "남자 아이를 위한 8가지 강간 예방법" (68p.)  
 ..항: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꼭 친구와 함께 다니세요.  
 \*남자 아이들을 잠재적 감자범으로 다루고 있음

### 2.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

"중·고등학교에서 여자학생에게 치마 교복을 입도록 강제하는 것도 차별이예요 (75p)  
 여자라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유리천장 지수'라고 불러요. 2016년 한국은 유리천장 지수 25점으로 OECD 나라들 가운데 점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55p.)

"2016년 유리기계(유리천장) 발표 한국 여성차별 세계 1위 여자 아이들 위한" "나의 첫 페미니즘" "유리천장은 왜 있는 걸까? (140p)" "유리천장은 왜 있는 걸까? (140p)" "유리천장은 왜 있는 걸까? (140p)"

# 4 도서관 서바이벌

학부모의 장외를 통해 우리 도서관에서 읽어야 할 책 "10대를 위한 빨간책"

### 1. 10대를 위한 빨간책 10개 청소년 성문화센터 추천도서

"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종의 자살 게임 같은 것.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 2. 걸스투크

"엄마가 아빠 꼬지 않고 애가 애가 꼬지 않는 게 아니겠어.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가짜는 어떻게 만들어?" "가짜는 어떻게 만들어?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140p)

# 2 페미니즘에서 살아남기

"남자 아이를 위한 8가지 강간 예방법"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남여의 대립 갈등을 부추기는 책을

### 1.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여성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 2의 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털을 미는 사람과 밀지 않는 사람" (60p.)  
 "남자 아이를 위한 8가지 강간 예방법" (68p.)  
 ..항: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꼭 친구와 함께 다니세요.  
 \*남자 아이들을 잠재적 감자범으로 다루고 있음



### 2.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

"중·고등학교에서 여자학생에게 치마 교복을 입도록 강제하는 것도 차별이예요 (75p)  
 여자라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유리천장 지수'라고 불러요. 2016년 한국은 유리천장 지수 25점으로 OECD 나라들 가운데 점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55p.)



# 2022 개정교육과정 중 성혁명 배제 결정 의미 해설(요약)

다음은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 12. 14. 국교위 수정 의결과 12. 22. 교육부 고시에 담긴 성혁명 교육 배제 결정의 의미와 실행 과정 유의사항에 관하여 복음법률가회가 발표한 내용 요약이다.

## 1. 취지

교육부는 2022. 12. 22. 고시 제2022-33호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다.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 관련해 2015년 이전 도입되었던 성혁명 교육 용어들 중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삭제하고 중심 용어인 성적자기 결정권은 유지하는 대신, 성취기준 해설에서 강압 등으로부터 보호라는 본래적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본 건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수정 고시는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 내용을 배제하라는 국가 최고교육결정기관의 법적 권위가 담겨 있어, 교육과정 안의 성 혁명적 용어 의미까지 규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정확한 법적 효과와 의의, 향후 과제에 대해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을 반대해온 복음법률가회가 아래와 같이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 2. 12. 14. 국교위 성혁명 배제 수정 의결의 의의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수정 고시는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을 배제하라는 국가 최고교육결정기관의 권위 있는 법적 결정'이다. 국교위는 12. 13. 소위원회에서 성적자기 결정권 의미를 성취기준 해설에서 명확히 제시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특별히 성전환과 조기성애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할 것을 넣어 합의하였다(이하 "본 건 괄호 안 문구"). 국교위는 다음날 12.14. 전체 위원회에 소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 설명한 후 의논 후 다수결로 소위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본 건 수정 의결을 성혁명 관련 모든 용어들에 적용되는 기본적 방향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유해한 동성애자나 낙태행위자를 발생 시키는 교육도 배제하는 결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성혁명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의 표현을 금지하는 전체주의적 성 독재를 구현하는 차별금지법 옹호 내용을 교육에서 배제하겠다는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 국교위의 12. 14. 수정 의결은 사실상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고시 내용을 구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5월 23일. '충남차제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담당자가 참여한 회의 개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몇 단체가 공동으로 '다학연' 홍보물에 사용된 삽화가 '살아남기' 시리즈로 유명한 출판사의 삽화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로 함.
- 6월 1일. 충남 서천군의회 환경석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 어린이 코너에 있는 도서 일부가 성적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유해하므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기사 보도됨. 기사를 충남차제연은 7월 10일에 알게 되었음.
- 6월 2일. 해당 출판사로 공문 발송.

①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천안, 한국성폭력상담소**

수신	미래엔 출판사 신광수 대표 한현동 그림작가
발신	대표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총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천안,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010-5019-0121)   act@politicalmamas.kr
제목	충남지역 부적절한 인쇄물 내 <살아남기> 시리즈 이미지 사용에 관한 질의 및 조치 요청의 건
발송일	2023년 6월 2일(금), 총 10쪽

1. 귀 단체 및 귀하에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천안,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충남지역 내 차별혐오선동이 포함된 부적절한 인쇄물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는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대표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③

한다는 포용성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생활 교육기관입니다. 어린이청소년과 양육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선동 행위는 도서관의 교육적 가치를 해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3) <살아남기> 시리즈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과학 상식 습득을 위한 도서로 20여 년 이상 대중적으로 사랑받아온 중요한 작품입니다. 저작을 무단 사용일 경우 저작권 침해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무엇보다 차별혐오 선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남기> 시리즈에도 큰 불명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엄과 평등, 포용과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귀 출판사 및 저작권자의 적절한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기 연락처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붙임1]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_인쇄물\_01~03.jpg (총 3장)  
 [붙임2]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인쇄물 내용

②

3. 지난 5월 본 단체들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이하 '다학연')이라는 단체가 인쇄물 <우리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를 충청남도 네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등기소포를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며 비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쇄물은 1) 성평등 가치에 대한 왜곡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 성평등 관련 도서들을 '유해' 도서로 매도하고 있으며, 2) 양육자들에게 성평등 관련 도서 배제 민원을 도서관에 넣도록 촉구하고 있어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단체들은 '다학연'의 인쇄물 배포 및 비치 요구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해당 사안의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학연'의 인쇄물 <우리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가 미래엔 출판사의 <살아남기> 시리즈 중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기> 제목을 차용했을 뿐 아니라, 그림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귀 출판사 및 저작권자에 다음과 같은 질의 및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 귀 출판사 및 저작권자는 '다학연'과 저작물 이용에 별도의 협의 및 계약을 추진한 바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다학연'이 별도 협의 및 계약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인쇄물이 배포되거나 비치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1) 해당 인쇄물이 양육자 제공용으로 배포되고 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에 비치될 경우, 어린이청소년들은 편견과 혐오가 깊이 뿌리내리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양육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 2) 특히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발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④

**대표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직인)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천안,  
한국성폭력상담소**

---

제출자 권은숙	공동대표 권은숙 · 박민아 · 서성민
시행 공문_정치하는엄마들_20230602_01	접수
(0693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4층	/ www.politicalmamas.kr
402호	
전화 010-5019-0121 전송 0507-9926-475	/ act@politicalmamas.kr / 비공개

**[붙임1]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_인쇄물\_01~03.jpg (총 3장)**

-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_인쇄물\_01.jpg

- 6월 4일. 충남차제연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해당 도서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를 열기로 결정.
- 6월 13일. 출판사에서 공문 회신.



- 6월 21일. 1차 책담회 개최.

6.21 (수) 7.5 7.19 8.2 8.16

\* 본 책담회는 4회차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회차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라는거지?**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

오후 7:00 ~ 9:00

1. 발제1.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발제2.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  
 발제3. 걸스톰리 나 - 첫 생리 이야기  
 발제4. 아름다운 탄생 - 아이와 사랑
2. 전문가와 의견 나누기 (나영정(타리)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브리바디 플래저팀 담당)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문의 | 010 4132 1413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다학연)은 성평등과 성적 권리에 대한 책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성평등과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혐오가 반대하는 책이라면 평등의 필독서가 아닐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 해당 도서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책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차 책담회
  - 발표자들은 해당 도서들은 생리와 임신, 섹스와 자위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며, 분비물, 생리컵에 대한 설명은 중년의 독자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좋은 책들이라고 소개함.
  - ‘조기성애화’를 부추긴다? 자위, 섹스, 생리, 임신에 대한 성교육은 그럼 언제 해야 하는 것인지? 호기심과 궁금증을 편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신뢰있는 관계의 중요성
  - 성기에 대한 사실적 일러스트가 외설? 자신의 몸을 자세히 알고 아끼는 것의 중요성. 먹고 말하는 ‘입’ 속을 보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질’을 보는 것은 문제?
  - 성적 즐거움은 모두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고, 성적 권리는 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 보수기독교는 생식과 연결되지 않는 성교는 문제라 함. ‘원치 않는 임신’과 ‘책임감 있는 섹스’ 관련, 임신을 원치 않으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하면 되고, 문제는 임신 이전, 즉 ‘원치 않는 섹스’이며, 이를 감추는 것이 오히려 문제. 성교육은 결국 ‘관계’에 대한 것.
  - ‘조기성애화’라는 프레임은 성이 즐거움과 권리임을 은폐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금지하는 것임. 누구나 성에 대해 배우고 알고 누리는 것이 필요함.



- 7월 5일. 2차 책담회 개최.

6.21      7.5 (수)      7.19      8.2      8.16

\* 본 책담회는 4회차까지 온라인중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회차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라는거지?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달레이 성평등 책담회**

오후 7:00 ~ 9:00

1. 발제1.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발제2. 안녕 내이름은 페미니즘이야  
발제3. 나의 첫 젠더 수업
2. 전문가와 의견 나누기  
(동은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문의 | 010 4132 1413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다음세대를여는학부모연합(다학연)은 성평등과 성적 권리에 대한 책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려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성평등과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혐오가 반대하는 책이라면 평등의 필독서가 아닐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 해당 도서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책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차 책담회
  - “우리는 다르게 태어나거나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고귀하게 여겨야 해요. 나와 다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다를 뿐이지요.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답니다.”(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 누군가의 몸에 그 몸의 주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말을 하는 것을 성희롱이라 하고, 강제로 원치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을 성추행/성폭행, 이 모두를 성폭력이라 일컫는다. 미투운동은 단순히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고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움직임이다.
  -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성폭력 의제를 보수화하는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공격과 잇달아 있다.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구도의 핵심에는 남성의 성욕을 성폭력의 발생원인으로 짚고, 이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행실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조언을 듣게 되는 이유가 된다.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해결에 대해 다른 설명을 펼쳐온 게 페미니즘. 성폭력의 핵심은 권력관계임을 밝혀내고 서로 적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등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왔음. 또한 성폭력의 의미를 남성의 강압에 대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정조이데올로기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온 것도 페미니즘. 그러나 현재의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의 성과를 무화하는 퇴행이다.

- 개정교육과정에서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압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본래적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정조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현재의 강간죄와 그 모델을 공유하는 것. 강간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는 피해자에게만 저항 여부를 묻게 만들고 있다.
- 섹슈얼리티와 성적 자기결정권 모두 특정 성행위가 아닌 나의 정체성, 관계, 사회적 소속과 관련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권력구조의 문제임을 제대로 드러내야 해결에 대한 모색도 가능함. 페미니즘, 반성폭력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언어를 만들어오고 운동을 해왔고, 이는 페미니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다학연이 문제라며 제시한 ‘남자아이를 위한 강간예방법’은 스웨덴의 한 정당에서 만든 것으로, 모든 여자아이들이 마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이나 몸가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성폭행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조언을 듣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여자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제한받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미러링이었음을 소개.
- 성폭력을 좁게 보는 법과 문화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이 제시하는 적극적 합의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소개. yes or no를 넘어서는, 폭력이나 위협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성적 즐거움을 목표로 두 사람이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추상적인 언어가 아닌 구체적인 것으로 다섯 가지 원칙. (명시적으로/의식이 있을 때/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평등하게/모든 과정에서 항상)

- 7월 8일. '도서관 성평등 도서 폐기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초안이 충남차제연으로 전달되었음.
- 7월 11일. 서명운동(안)을 비롯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충남차제연 임시집행위원회 개최. 회의에서 성평등 도서를 폐기하라는 움직임을 비판하고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제안하고 개최하기로 하고,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한 관계자 면담을 7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함.
- 7월 17일. 도서관 관계자들 면담. 5월부터 시작된 공문, 방문, 전화 등 괴롭힘 상황을 알게 되었음.

[면담 요지]

- 5월 초부터 충남교육청 산하 모든 도서관으로 '꿈키움연구소성장연구소' 등 단체의 공문이 발송되었음.
- 공문 내용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위배되는 성평등과 성교육 관련 도서를 빼라는 것.
-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특정 책의 폐기는 불가함을 알리자 소란과 지속적인 전화 등 괴롭힘이 이어졌음.

[도서관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전화는 충남지역만이 아니라 대전 등 전국에서 왔음.
- 괴롭힘에 견디다 책들을 서가에서 빼어 이동시킴. 충남도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해당 책들이 서가에 없거나, 장기 대출 중인 상황이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비슷한 상황임.
- 꿈키움성장연구소 등의 단체는 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충남도의원 모두에게 보냈다고 함.

- 7월 19일. 3차 책담회 개최.

■ 3차 책담회

- 자신의 다른 정체성을 고민하거나 성소수자로 이미 정체화 한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부모의 자녀,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또래의 동료 시민인 아동 청소년 모두에게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담은 도서들은 중요한 의미. 등장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며 때로 지지자를 만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은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음.
- <우리가족은 행복해요!>는 성소수자 가족에게도 의미 있음. 이미 한국에도 가족을 꾸리고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 가족들이 있음. 가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책들은 부모가 성소수자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님. 이 책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비성소수자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나와 동료시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기도 함.
- 다학연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책이 주는 위로와 공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음. 맘에 안든다고 책을 빼라는 것은, 의식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정말 문제임.

- 7월 24일. 충남교육청으로 토론회 참여를 요청하는 충남차제연 공문 발송, 토론회 홍보 시작.
- 7월 24일. 충북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여 도서관들이 대한출판협회로 공문 발송한 것을 알게 되었음. 아래는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도서 목록.

[붙임1]

**유해도서목록으로 작성된 민원제기 대상도서**

\* 2. 『10대를 위한 빨간책』의 경우 완전저지사항을 기술하지 않은 채 목록이 작성되어 제출된 바, 동일서명의 2권 모두를 목록에 제시함.

\* 형광펜으로 처리된 도서의 경우 2020년 논란이 되었던 나다운선정도서임.

NO	목록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1	10대들을 위한 성교육	수잔 매리디스 (지은이), 박영민 (옮긴이)	세움출판	2007
2	10대를 위한 빨간책	마갈리 플로즈네르 (지은이), 자크 아잠 (그림), 오경선 (옮긴이)	개마고원	2014
		보단 안데르센, 소현 한센, 제스퍼 젠센 지음, 옮긴이: 목수정	레디앙	2016
3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변해정 (위은이),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유색인)	동녘	2010
4	Being a boy 소년이 된다는 것	제임스 도슨 (지은이), 스파이크 제럴 (그림), 임미정 (옮긴이)	봄나무	2017
5	Being a girl 소녀가 된다는 것	해일리 롱 (지은이), 켈마 코렐 (그림), 김인경 (옮긴이)	봄나무	2016
6	for Girl, for Boy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 지식	엘렌 코엔 지음 ; 박진희 옮김	생각의집	2020
7	Girls talk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 주지 않는 것들	이다 글·그림	시공주니어	2019
8	가슴이 궁금한 너에게	유미 스타인스, 텔리사 캉 (지은이)	다산이야기	2022
9	걸 스토리 '나: 첫 생리 이야기	빅 파커 (지은이), 박주희 (그림), 박준규 (옮긴이)	올파소	2006
10	고마워 성, 반가워 사춘기 열흘간 떠나는 행복한 성교육 여행	정미금 (지은이), 황미선 (그림)	한솔수북	2008
11	구성애 아줌마의 뉴초딩 아우성	구성애 (지은이), 리갤러리 (그림)	울리브(M&B)	2011
12	꽃할머니	권윤덕 글·그림	사계절	2010
13	나는 반대합니다	데비 레비 글 ; 엘리자베스 베들리 그림 ; 양진희 옮김	함께자람·교회사	2017
14	나다운게 뭐야?	미리옹 말 (지은이), 김자연 (옮긴이)	리임	2022
15	나도 엄마 배 속에 있었어요?	다그마가이슬러글·그림; 김시형 옮김	풀빛	2012
16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크리스티나 드 워타 (지은이), 김인경 (옮긴이)	리듬문고	2019
17	나의 젠더 정체성은 무엇일까?	테레사 손 글 ; 노아 그리그니 그림 ; 조고은 옮김	보물창고	2020
18	나의 첫 젠더 수업	김고연주 (지은이)	정비	2017
19	난 어떻게 태어났을까?	피터 메일 (지은이), 아서 로벤스 (그림), 김민화 (옮긴이)	서둘	2006
20	남자 여자가 바뀌면 좋겠어!	김선영 (지은이), 이은지 (그림)	키위북스(어린이)	2020
21	누가 진짜 엄마야	버나뎃 그린 글 ; 예나 조벨 그림 ; 노지양 옮김	원더박스	2021
22	니몸, 네맘 얼마나 아니?	배정원 (지은이), 최해영 (그림)	팜파스	2015
23	다른게 틀린건 아니잖아?	류은숙 (지은이), 원혜진 (그림)	양철북	2015
24	달라도 친구	허은미 글 ; 정현자 그림	웅진주니어	2010/2021

25	돌직구 성교육	제인 폰다 (지은이),나선숙 (옮긴이)	예문아카이브	2016
26	동이가 서툰 너에게	유미 스타인스,멜리사 캉 (지은이),제니 래섬 (그림),이정희 (옮긴이)	다산어린이	2021
27	따로 따로 행복하게	베벳 콜 (지은이)	보림	1999
28	딸 인권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글 ; 에스텔 비용-스파 놀 그림 ;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29	루나레나의 비밀 편지	안명옥, 황미나 지음	책과이음	2005/2020
30	루카-루카	구드룬 맵스 ; 미하엘 쇼버 그림 ; 김경연 옮김	풀빛	2020
31	모더니타	모데르나 데 푸에블로 (지은이),최하늘 (옮긴이)	춘희네책방	2022
32	불평등과싸우는여성대법관루스베이더긴즈버그	조너 윈터 글 ; 스테이시 이너스트 그림 ; 차익중 옮김	두레아이들	2018
33	빨강은 아름다워	루시아 자울로 글·그림 ; 김경연 옮김	사계절	2021
34	사랑에 빠진 알콩이와 달콩이	실비 지라르데 글 ; 푸이그 로사도 그림 ; 이효숙 옮김	초록개구리	2015
35	사랑을 나누면 무슨 일이 생길까?	크리스티안 베르두 (지은이),조의행 (옮긴이)	다섯수레	2004
36	니 몸, 네 맘 얼마나 아냐? 사실 십대가 진짜 알고 싶었던 솔직한 성 이야기	배정원 (지은이),최해영 (그림)	팜파스	2015
37	사춘기 내 몸 사용설명서	안트예 헬름스 글 ; 안 폰 홀레벤 사진 ; 박종대 옮김	조선Books:조선에듀케이션	2014
38	사춘기 성장 비밀	재키 배일리 (지은이),세라 네일러 (그림)	미래엔아이세움	2009
39	생각이 크는 인문학·성평등	김윤경글; 이진아 그림	울파스	2016
40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	유미 스타인스 ; 멜리사 캉 [공]글 ; 제니 래섬 그림 ; 김선희 옮김	다산어린이	2019/2021
41	서연이의 페미니즘 다이어리	김고연주 지음 ; 김다정 그림	청어람아이	2020
42	성 역할과 성 평등 사회는 쉽다	신혜진 (지은이),홍지혜 (그림)	비룡소	2020/2022
43	성 터놓고 얘기해요	로비 H. 해리스 ; 마이클 엠벌리 그림 ; 주은희 번역	다섯수레	2003
44	성교육을 부탁해	이영란 글 ; 강효숙 그림	풀과바람	2016
45	성평등	정수임 지음 ; 홍지연 그림	서유재	2020
46	성평등이 뭐예요?	제랄딘 맹상 글 ; 하프밤 그림 ; 이정주 옮김	개암나무	2018
47	세상을 바꾼 아주 멋진 여성들	케이트 팅크허스트 글·그림 ; 니모 옮김	머스트비	2017
48	세상의모든가족	알렉산드라 막사이너 글 ; 양케 콜 그림 ; 김원균 옮김	푸른숲주니어	2014
49	세상의 모든 가족을 위한 그림책,가족 백과사전	메리 호프만 (지은이),로스 에스퀴스 (그림),신애라,차정민 (옮긴이)	밝은미래	2010

50	소녀 몸 교과서	윤정원,김민지 (지은이),홍화정 (그림)	우리학교	2021
51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	정희진,김고연주,박선영,윤이나,이유나,김애라,김홍미리,문미정,김주희,최은영,하정옥,장이정수 (지은이)	우리학교	2017
52	소녀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소냐 르네 테일러 (지은이),김정은 (옮긴이)	휴머니스트	2019
53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	윤은주 글 ; 이해정 그림	사계절	2019
54	소년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스콧 토드넘 지음 ; 김정은 옮김	휴머니스트	2020
55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일로나 아인볼트 (지은이),바바라 용 (그림),마정현 (옮긴이)	위즈덤하우스	2020
56	소년의 성 보이툰	최황 (지은이),홍승우 (그림)	동아일보사	2006
57	솔직히말해주세요	에지오 아체티,알베르타 로텔리아 (지은이),비토리오 세디니 (그림),강경화 (옮긴이)	서광사	2004
58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조르지아 베헤리 글 ; 마시말리아노 디 라우로 그림 ; 이승수 옮김	머스트비	2016
59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사춘기와 성 이야기	이명화,양윤경 (글),최정인 (그림)	가나출판사	2014
60	십대들의 성장 다이어리 -소녀편-	에이미 마들먼,케이트 파이퍼 (지은이)	시그마북스	2009
61	십대들의 성장 다이어리 -소년편-	에이미 마들먼,케이트 파이퍼 (지은이),김봉년 (옮긴이)	시그마북스	2009
62	아기는 HOW 어떻게 태어났어요?	안나 피스케 (지은이),군자출판사 학술국 (옮긴이)	군자출판사 (교재)	2021
63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페르 홀름 크누센 지음 ; 정주혜 옮김	담푸스	2017
64	아들 인권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글 ; 에스텔 비용-스파블 그림 ;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65	아름다운 탄생	아네스 로젠스티엘 글·그림 ; 손수정 옮김	걸음동무	2014
66	아빠 인권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글 ; 에스텔 비용-스파블 그림 ;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67	아빠는 페미니스트	론다 리트 지음 ; 매건 워커 그림 ; 손영인 옮김	봄나무·한즈미디어	2018
68	아우성 빨간책 남자 청소년편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지은이)	올리브엠비(주)	2017
69	아우성빨간책여자청소년편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지은이)	올리브엠비(주)	2018
70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성	마르기트 미터 (지은이)	에디터	2007
71	아이에서 어른으로 나 이제 남자야?	누리아 로카 (지은이),마르타 파브레가 (그림),박세형 (옮긴이)	청어람주니어	2007
72	아이에서 어른으로 나 이제 여자야?	누리아 로카 (지은이),메릿셀 리베스 (그림),박세형 (옮긴이)	청어람주니어	2007
73	아홉 살 성교육 사전 남자아이 마음	손경이 지음 ; 방인영 그림	다산에듀·다산북스	2020
74	아홉 살 성교육 사전 남자아이 몸	손경이 지음 ; 방인영 그림	다산에듀·다산북스	2020

75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여자아이 마음	손경이 지음 ; 원정민 그림	다산에듀	2020
76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여자아이 몸	손경이 지음 ; 원정민 그림	다산에듀;다산북스	2020
77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	강남순 글 ; 백두리 ; 허지영 [공]그림	동녘주니어	2018
78	안녕 내 친구는 페미니즘이야	강남순 글 ; 백두리 ; 이미주 [공]그림	동녘주니어	2020
79	안녕, 나의 사춘기	안치현 (지은이),손수정 (그림)	미래연아이세움	2020
80	안녕, 생리야	첼라 퀴트 글 ; 조바나 메데이로스 그림 ; 김정은 옮김	파스텔하우스	2022
81	알수록 신기한 과학 이야기 성교육	쿨린 바라스 (지은이),이다운 (옮긴이)	타임북스	2018
82	어린이 양성평등 이야기	권인숙 지음 ; 민재희 그림	청년사	2008
83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초등성평등연구회 지음 ; 이해정 그림	우리학교	2018
84	어린이가 궁금한 성 이야기- 내 몸이 궁금해	강순애 (글),iwi (그림),김영주 (감수),손재수 (구성)	대교북스주니어	2012
85	어린이가 궁금한 성 이야기- 내 성은 건강해	구성애,김대식,방명걸 (지은이),iwi (그림)	대교북스주니어	2012
86	어린이를 위한 성평등 교과서	스테파니 뒤발,상드라 라부카리 (지은이), 파스칼 르메트르 (그림)	라임	2020
87	어린이를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신현경 글 ; 이갑규 그림	해와나무	2012
88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사샤 뷔레그렌 글 ; 열린 린델 그림 ; 김 아영 옮김	풀빛	2018
89	엄마 인권선언	멜리자베스 브라미 글 ; 에스텔 비용-스파 놀 그림 ;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90	엄마씨앗 아빠씨앗	티에리 르낭 글 ; 세르주 블로크 그림 ; 권순영 옮김	파랑새	2016
91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나카야마 치나쓰 글 ; 야마시타 유조 그림 ; 고향옥 옮김	고래이야기	2018
92	여자 사전	니나 브로크만,엘렌 스토켄 달 (지은이),망 힐 비스네스 (그림)	초록서재	2021
93	여자? 남자? 같은 것 다른 것 성과 양성 평등	안현진 (지은이),오정민 (그림)	뽕치	2021
94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	플란탈 팀 (지은이),루시 구티에레스 (그 림)	풀빛	2017
95	열네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몸과 마음	유현진,이승환 (지은이),이세린 (그림)	맑은샘(김양수)	2022
96	열두달 성평등 교실	초등전터교육연구회 아웃박스 (지은이), 정재윤 (그림)	파란자전거	2021
97	외계인 소녀, 원시인 소년	프랑수아즈 부세 글;그림 ; 최성웅 옮김	파란자전거	2015
98	우리 여자도 할 수 있어요	소피 구리옹 글 ; 이자벨 마로제 그림 ; 김미리 옮김	이숲	2019
99	우리 할머니는 페미니스트	이향 글 ; 김윤정 그림	아르볼;지학사;아르 볼;지학사;아르볼;지 학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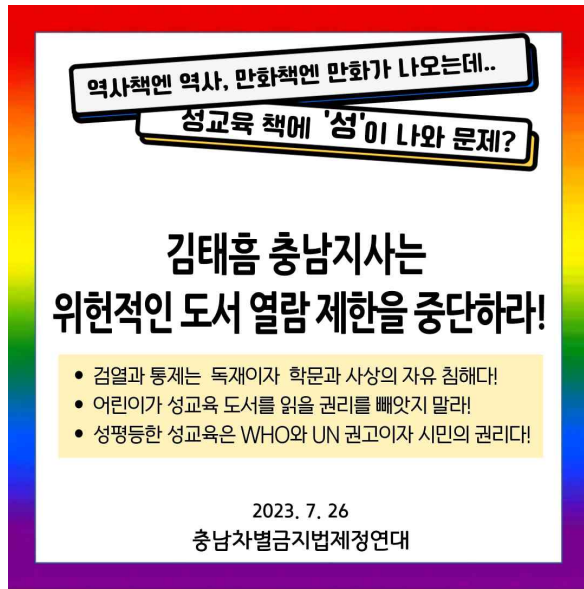
100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메리 호프만 글 ; 로스 애스퀴스 그림 ; 이미애 옮김	내인생의책	2017
101	유니세프가 들려주는 어린이 권리	제라르 도텔 글 ; 루이즈 와젤 그림 ; 곽노경 옮김	개암나무	2014
102	이상해? 다양해!	아틀리에실험실지움 ; 김경연 옮김	풀빛	2018
103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페르닐라 스탈멜트 글·그림 ; 이미옥 옮김	시금치	2016
104	줄리의 그림자	크리스티앙 브뤼엘 글 ; 안 보졸렉 그림 ; 박재연 옮김	이마주	2019
105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평등수업	소피 뒤소수와 글 ; 자크 아잠 그림 ; 권 지현 옮김	다림	2019
106	착한 사회를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소녀 소년 평등 탐구생활	양해경 (지은이), 권송이 (그림)	파란자전거	2013
107	청소년 빨간 인문학	키라 버몬드 (지은이), 정용숙 (옮긴이)	내인생의책	2014
108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이혜진 (지은이)	파라주니어 (=파라박스)	2009/2016
109	초등학생을 위한 똑똑한 좋은뉴스	라슈미 시르데슈판드 (지은이), 이하영 (옮 긴이)	솔빛길	2022
110	초보자를 위한 페미니즘	누리아 바렐라 (지은이), 안토니아 산톨라 야 (그림)	시대의창	2020
111	최달수 선생님의 마법의 성	최달수	김영사	2002
112	치마를 입어야지, 아멜리아 블루머!	샤넬 코리 지음 ; 체슬리 맥라렌 그림 ; 김서정 옮김	아이세움	2003
113	꽃수염 공주	에브 마리 로브리오 글 ; 오렐리 그랑 그 림 ; 박재연 옮김	토끼섬	2022
114	파랑 여자 분홍 남자	김경옥 (지은이), 홍찬주 (그림)	내일을여는책	2021
115	평화의 소녀상	윤문영·글·그림 ; 이윤진 영문	내인생의책	2015/2020
116	함께 살 사람을 고를 수 있다면	서보현 (지은이), 우지현 (그림)	우리학교	2022
117	행복한 사춘기를 위한 넓고 깊은 성지식 성교육 상식 사전	'인간과 성' 교육연구소 (지은이), 다카야나 기 미치코 (역은이), 남동윤 (그림), 김정화 (옮긴이)	길벗스쿨	2015

- 7월 25일. 충남도의회. 지민규도원이 어린이 유해도서 문제 발언하자 김태흠지사는 열람을 제한하겠다 발언.
- 7월 25일 한겨레신문 보도. “보수 학부모들, 인권 117권 금서 요청...‘위안부’ 그림책도”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1571.html?\\_fr=mt2&fbclid=IwAR17r1RTyz15xPyaH35ZNN1Pu9Pqjvskblnq2I9OPMCKaFg78ThVMNq0OCc](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1571.html?_fr=mt2&fbclid=IwAR17r1RTyz15xPyaH35ZNN1Pu9Pqjvskblnq2I9OPMCKaFg78ThVMNq0OCc)

- 7월 25일 경향신문 보도. “성교육 책 빼라고! 학부모단체 집요한 민원·도지사 맞장구에 ‘백기’ 든 도서관”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8522>

- 7월 26일. 충남차제연 비판 논평 발표.



**성교육 도서 금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위반이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성평등 도서 열람 제한 발언을 규탄한다.**

1. 민주주의는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책을 읽을 권리를 보장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시민의 도서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5조.”

2.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 아동청소년이 성교육도서에 접근할 권리를 막는 것은 유엔사회권조약,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위반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2016). C. 핵심 의무사항.

49. 당사국들은 최소한 필수적인 수준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현대의 인권문서 및 사법권의 지침, 그리고 특히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구기금과 같은 유엔기구들이 설립한 가장 최근의 국제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이 핵심의무사항들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f) 모든 사람 및 집단이 차별적이지 않고, 편견이 없고, 근거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달하는 역량을 고려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할 것;”

3.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나 특히 정치인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시대착오적인 성(性) 관념과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차별적 인식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림돌이자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다. 김태흠지사와 일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지방의원에게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학습을 권한다.

- 7월 26일. 오마이뉴스 보도. “나 학부모다, 성교육 책 빼라” 악성 민원 시달리는 공공도서관 “  
<https://omn.kr/24y6q>
- 7월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도. ”금서지정 요청... 도서관 마비시킨 학부모 단체 - 황두영작가“  
[https://youtu.be/hYg\\_UAvjpfE](https://youtu.be/hYg_UAvjpfE)



- 7월 26일. 문화연대 논평 발표.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보수단체는 근거 없는 금서 지정 요청을 중단하라!

보수 성향의 민간 단체들이 인권·평화·성교육 등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책이 “유해 도서”라며 공공도서관 등에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들 단체들이 제기한 도서출판물 117종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뢰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보수단체들이 지적한 도서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문제인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개별 도서관 등에 반복된 민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민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토론과 협의보다는 자기 생각만 옳다는 식의 폐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마저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에 불과하다.

실제로 문제 제기가 된 책들을 살펴보면 젠더·성평등과 같은 인권을 주제로 하거나,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 관련 도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들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내용들이라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유해 도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한 책들을 유해 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이들 도서들이 금지도서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 온 제도이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규제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한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특정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데 적절한 방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볼모로 한 보수 진영의 이념 논쟁 프레임에 불과하다. 진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나은 교육환경과 사회를 원한다면 검열과 규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특정 도서와 도서관에 대한 마녀사냥식 논쟁 방식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자신들은 민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책들을 편견 없이 읽고 나누는 지식의 공간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사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지적 탐구의 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단체들의 근거 없는 금서 도서 지정 요청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도서관을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마라!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 7월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입장문 발표. 보도.  
[“도서관에 출판물 대출금지·폐기 요구는 기본권 침해” | KBS 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오늘(27일) 입장문을 내 "문제가 제기된 도서들은 도서관의 전문 인력인 사서들에 의해 선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없이 전국의 도서관에서 대출되고 있는 도서로서 사회적 공동의 가치와 유익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서관과 사서는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기반해 개인의 사상과 편견을 배제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도서를 선정한다"면서, "해당 도서들을 유해도서라 명하고 접근을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도서관과 사서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협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하여 국민주권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1998년 4월 30일, 특정 출판물이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표현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우리 사회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문화적 특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문화적 권리 보호와 차별시정, 인식제고 등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특정 분야의 도서를 제한한다는 것은 문화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협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개인에 대한 존엄과 권리,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낙인과 검열을 중단하고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한 걸음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이 "국민에 대한 자유로운 도서 제공의 의무와 권한을 가진 도서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 민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인용)

- 7월 28일. 대전MBC 라디오 <시대공감>에서 관련 사항으로 충남차제연 활동가 전화 인터뷰  
<https://youtu.be/f0qZsgNXNnE>
- 7월 28일. 오마이뉴스 보도. '성교육책 빼' 민원에 출판협회 "자기검열 강요행위 중단하라"  
<https://omn.kr/24z8o>
- 7월 30일. 경향신문 보도. "이 책을 왜 도서관에서 없애란 거죠?" 금서 찾아 읽는 사람들  
<https://v.daum.net/v/20230730102831609>
- 7월 31일. 대전KBS 라디오 대세남 집중 인터뷰에 충남차제연 활동가 출연.

2. 충남교육청 도서관별 해당 도서 현황<sup>1)</sup>

• 검색 도서 목록

순번	서명	저자	발행인	발행년
1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핑이!	에스텔 비용 스파놀 글.그림, 조정훈 옮김	키즈엠	2014
2	아빠 인권 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지음, 에스텔 비용 스파놀 그림,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3	엄마 인권 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지음, 에스텔 비용 스파놀 그림,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4	아들 인권 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지음, 에스텔 비용 스파놀 그림,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5	딸 인권 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지음, 에스텔 비용 스파놀 그림, 박정연 옮김	노란돼지	2018
6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나카야마 치나쓰 지음, 아마시타 유조 그림, 고향옥 옮김	고래이야기	2018
7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피오나 커토스커스 지음, 이승숙 옮김	고래가슴 쉬는도서관	2018
8	Girl's Talk 걸스토크	이다 지음	시공주니어	2019
9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페르 홀름 크누센 지음, 정주혜 옮김	담푸트	2017
10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페르닐라 스탈펠트 글.그림, 이미옥 옮김	시금치	2016

[표1. 2020년 여가부가 회수한 ‘나다움’ 어린이책 7종, 10권 목록]

1) 7월 25일 현재 도서관 누리집과 전화통화로 ‘충남차제연’이 조사함.

• 검색 결과

도서관	도서 현황	도서 검색	도서 열람	도서 위치	비고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 주 도 서 관		0	0	아동, 유아자료실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홍 성 도 서 관		0	0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예 산 도 서 관		0	0	아동자료실	3, 4, 5번 소장 나머지 7권 미소장
충청남도교육청 서 부 평 생 교 육 원		0	×	아동자료실	휴관. 도서 대출 및 열람 불가능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청 양 도 서 관		0	X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아 산 도 서 관		0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해 미 도 서 관		×	×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금 산 도 서 관		×	×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서 천 도 서 관		0	0	보존서고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성 환 도 서 관		×	×		
충청남도교육청 학 생 교 육 문 화 원		×	×	×	해당도서 미소장
충청남도교육청 남 부 평 생 교 육 원		×	×	×	해당도서 미소장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유 구 도 서 관		×	×	×	해당도서 미소장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웅 천 도 서 관		×	×	×	해당도서 미소장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부 여 도 서 관		×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태 안 도 서 관		×	×		
충청남도교육청 평 생 교 육 원		0	0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보 령 도 서 관		×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당 진 도 서 관		0	×		대출 및 예약 불가

[표2.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관 대상 '표1 도서' 검색 결과]

### 퇴행하는 성평등과 민주주의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6~2017년 촛불 당시부터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국면까지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슬로건은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압축하는 선언이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진단 속에 등장한 촛불은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성평등’을 빼놓고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계기였다. 2018년 #미투 운동과 함께 폭발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달라진 우리는 당신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선언,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등장한 ‘이제 우리는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 모두 마찬가지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가 ‘누구의’ 민주주의였는지를 질문함과 함과 동시에 기존 민주주의 질서를 성평등이라는 지향과 관점 하에서 새롭게 갱신 혹은 재구성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우리에게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운동(2017), 21만명이 참여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와대 청원(2018), #스쿨미투(2018) 흐름은 여성·성/소수자·청소년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

“민주주의 완성은 조레나 법률에 있지 않다. 실제로 평등이 얼마나 실천되느냐에 달려 있다.”<sup>2)</sup>

성평등의 ‘제도화’가 아니라 성평등의 ‘실천’ 정도에 따라 성평등 민주주의가 가능될 수 있다는 김지철 충남 교육감의 지적은 정확하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세력에 대응하는 실천은 성평등과도 민주주의와도 ‘별개’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페미니즘 세력과 같은 논리로 성평등 도서를 문제 삼는 지방의회 의원(지민규 도의원)과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지자체장(김태흠 충남지사)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도 ‘내부 논의 중’이라거나, ‘의견 수렴 후 성교육 관련 도서 구입 시 참고’하겠다고는 말로 중립기어 정치를 실천할 뿐이다.

#### 성평등 도서 배제 요구, ‘학부모 단체’의 민원이라는 허울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가 검열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자연스럽게 2020년 나다움어린이책(이하 나다움책) 회수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분학연),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등 이른바 ‘혐오선동세력’이 나다움책을 ‘포르노 같은 동화책’으로 낙인찍자 국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2) 「김지철 “성평등, 민주주의 완성 위해 필수”, 『디트NEWS24』, 2021년 3월 8일자.

나서 ‘조기성애화 우려’, ‘동성애 조장.미화’를 이유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질타하고, 다음날 여성가족부가 나다움책 회수를 발표했다. 2023년 충남에서도 성평등 도서는 비슷한 운명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다학연)이 ‘우리 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라는 전단지 배포하고,<sup>3)</sup> 꿈키움성장연구소가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 완전 배제를 요구하며 성평등 도서를 빼라는 집요한 민원을 제기하자 군의원과의 의원까지 이에 가세한 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에서 나다움책 7종의 열람을 제한했다.

하지만 2023년 충남에서 다시 나다움책이 열람을 제한당하고 150여 권에 이르는 책들이 ‘불온한’ 성교육.성평등 도서로 지목당한 상황은 단순히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의 민원으로 국한해서 보기 힘들다.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꿈키움성장연구소, 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다학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우학연) 등 학부모단체들은 현재 충남도의회에 폐지 청구안이 올라가 있는 충남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단체들이다. 낙태죄 폐지 이후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요구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하는 입장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에도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의 최선전에 이른바 ‘혐오선동세력’으로 불리는 보수개신교 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보수개신교는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sup>4)</sup>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반동성애 운동(Anti-Homosexuality Movement) 세력으로 등장했으며,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조장법’ 혹은 ‘동성애 확산법’으로 왜곡해왔다. 학생인권조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나 생활동반자법안 등이 ‘미니 차별금지법’ 혹은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버전’으로 불리는 이유는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종교연구자들은 1980년대 말 보수개신교가 “성속이원론-성교 분리론이라는 외투마져 벗어던지고 직접적인 사회참여.정치참여 노선으로 선회”<sup>5)</sup>한 이후, 2000년대 즈음부터 개신교의 사회적 공신력이 하락하고 교세가 침체되는 등 위기를 겪자 동성애 혐오 정치를 개신교 내부 결집을 위해 동원.활용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다.<sup>6)</sup> 강인철의 지적처럼 보수개신교가 동성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영적 전쟁 프레임에 기초한 타자(동성애자)의 비인간화’로 압축되는데, 이 배경에는 또 하나의 위기가 지리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sup>7)</sup>라 말하는 것처럼 동성혼 제도화로 인해 미국도 실

3) 지난 5월 경 다학연은 ‘우리 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학부모들이 공공도서관에 민원을 넣어 ‘성평등 도서’를 빼도록 선동하고, 공공도서관에도 이 유인물을 비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차제연과 충남차제연은 이러한 유인물이 충남 지역 내에서 배포되지 않도록 공동대응을 해왔다.

4)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학력, 병력(病曆),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까지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정부안으로 발의되었다. ‘동성애 확산’을 이유로 ‘성적 지향’ 삭제를 요구한 보수개신교 세력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5) 강인철, 박노자(2016), 「한국 종교의 보수성을 어떻게 볼까 - 개신교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44(1), 403.

6) 윤신일과 오세일은 정치·사회참여 방식을 통해 나타난 개신교 근본주의의 특징이 ‘속’으로 규정한 영역 및 대상에 대한 반대와 혐오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을 논증하며 ‘반세속화(anti-secularization)’로 명명한다. 그리고 보수주의 교단일 수록, 근본주의 교단일 수록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이라는 4대 혐오 대상을 배경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적 경향이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윤신일, 오세일(2021), 「한국 근본주의 개신교인의 ‘4대 혐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5(1), 39-88 참조.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최근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 물결로 레드(공산주의), 블랙(이슬람), 레인보우(동성애)를 언급한 바 있다.

7)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상임고문 최흥준 목사)·홀리라이프(대표 이요나 목사), 「보수 개신교 단체, 또 탈동성애 축제」, 『뉴스앤조이』, 2015년 5월 8일자.

패한 '동성애 문제', 즉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막아내는 것을 한국교회의 '몹'으로 보고 있다.

### 반(反)동성애와 함께 반(反)페미니즘의 선두에 선 보수개신교

하지만 보수개신교가 스스로의 전선을 “동성애·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좌파'와의 싸움”으로 의미화하게 된 배경, 전통적인 반(反)동성애와 함께 노골적인 (反)페미니즘을 본격화한 배경에는 젠더(gender) 정치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있다. 혹자는 보수개신교가 새로운 전략으로 종교색을 지우며 페미니즘이라는 외피를 쓰고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보기도 했지만(제주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는 보수개신교와 일부 여성대중들이 ‘국민-여성이 먼저’라는 이념으로 조우하기도 했다), 이숙진은 보수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정치의 뿌리에 “정상가족의 해체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상가족 복원기획”이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8)</sup>

최근 보수개신교 세력이 ‘성혁명 쓰나미’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제는 1) 차별금지법(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 역차별), 2) 학생인권조례(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육 봉쇄), 그리고 3) ‘동성혼합법화 3법’이 있다. 이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으로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혼출산지원법(무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이 포함된다.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보수개신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3법을 극렬하게 반대한다.<sup>9)</sup>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sex)에 기초해 혼인과 가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3법과 동성애를 확산·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교육 비판을 가로막는 학생인권조례는 보수개신교의 ‘영적 전쟁 프레임’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붕괴키는 위협 요소이다. 보수개신교 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를 둘러싸고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구호를 외치며 인권화 된 대립구도를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0년 8월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척결 과제로 내세운 ‘바른여성인권연합’의 출범은 다양성, 공존,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라는 ‘문제적 성’을 포괄하려는 ‘포괄적 성교육’을 정확하게 겨냥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결국 낙태와 피임을 권장하는 것으로 출생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이는 가족붕괴, 인구감소, 인류 위기의 원인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강조는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이를 무시하며 동성애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로 등장한다.) 이숙진은 보수개신교가 동성애를 근대 핵가족·정상가족 질서를 파괴하는 타자로 등장시키면서(타자화), 정상가족의 유지와 강화에 필수적인 주체를 재생산하는(주체화) 전략을 통해 젠더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와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에 근거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고 본다. 바른여성인권연합이 가족을 파괴하는 주체로 여성가족부를 지목하며 폐지 운동에 나서고 ‘다시 가정으로’ 캠페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등을 진행하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타자화외 주체화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이는 ‘가족 가치’를 강조하며 레이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한 미국 보수개신교 우파의 역사, 그리고 ‘교육 수호 학부모회(Parents

8) 이숙진(2022), 「한국 개신교의 정상가족 만들기 - 타자화와 주체화 전략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82(1), 87-112.

9) 헌법 제36조 1항 ‘양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류민희, 「법정을 넘어서 - 동성결혼소송과 법적 쟁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15년 8월 3일자 중 “헌법 제36조 제1항 ‘양성의 평등’ 문언이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지 여부”

Defending Education)'와 '교육에서 좌회전 금지(No Left Turn in Education)'로 대표되는 현재의 학부모 정체성을 내세운 우익 운동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보수개신교는 '우익 여성 대중운동'을 필두로 '양성평등 YES'를 통해 때로는 페미니즘의 외피를 쓰며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때로는 '성평등 NO'를 통해 정상가족이라는 사회질서를 복원하려는 대항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2020년 나다움책 사태 이전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조례안에 있지도 않은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라고 압박하며 경험을 쌓은 '구리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sup>10)</sup>은 ('우리 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 유인물에 따르면) 구리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를 제외하는데도 성공하고, 올해 구리시 '책의 날' 행사에 동네서점 및 도서관들과 참여단체로 나란히 어깨를 함께 했다. 다른 자치체 행정/관료로부터 쌓은 성공의 경험이 다시 충남을 '성평등 NO'라는 이념의 전장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보수개신교의 '반페미니즘-반동성애' 주장에 정치권이 호응하며 이를 제도 정치 내에서 실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 보수개신교와 교감, 동행하는 제도 정치

충남 성평등 도서 배제 사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자체에서 '성평등'에 대한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수개신교 혐오선동세력이 아니라 지방의회 정치인들이 서 있다. 올해 1월 경기도 서성란 도의원(국민의힘)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5월에는 홍성우 울산시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이 “페미니즘, 동성애 옹호, 퀴어축제 등 성적으로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편향된 교육”을 문제삼으며 교육당국의 목인을 질타했다. 정규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들이 젠더 교육, 동성애 교육을 한다’는 민원을 거론하며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의 자문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모두 올해, 최근에 벌어진 일이다.

반페미니즘 세력이 여성정책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정치활동이 증가했을 때 행정 관료들의 행위와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백미록은 여성정책 후퇴의 부분적 요인으로 작동하는 행정 관료들의 ‘젠더 적대’가 “반페미니즘과 동일한 언어로” 여성정책을 공격하고 집행을 거부하는 뚜렷한 양상으로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sup>11)</sup> 행정 관료는 아니지만 위 연구에 비추어 우리는 지방의회 정치인들의 양상 또한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전제로 하는 성은 여성과 남성 두 가지이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주장하는 평등으로서의 성평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행 법체계와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의 평등을 위한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오해 또는 오용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2)</sup>

10) 「[성교육 전쟁①] '조직적 항의 폭탄' 반동성애 진영 타깃 된 '청소년성문화센터'」, 『뉴스앤조이』, 2019년 12월 19일자.

11) 백미록(2023),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후퇴 과정 분석」, 『한국여성학』 39(2), 171-201.



양성평등을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성소수자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 '양성평등 YES vs 성평등 NO' 대립구도를 내세우는 보수개신교의 대표적인 주장과 시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다움책 낙인찍기와 회수에 앞장섰던 정치인의 주장<sup>13)</sup>, 지방의회 의원들의 논리가 일말의 차이도 없이 닮아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사회 제도정치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보수개신교 우파에 동조하는 일탈적인 보수 정치인의 현실이 아니라,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평등'에 갇힌 한국사회 정치의 역사에 노정된 현실이다.

### 성적 차이, 갈등과 논쟁을 우회하는 정치

○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었으나, 오랜 시간 '성평등기본법 vs 여성정책기본법 vs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안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법의 목적과 '성별' 범위가 이원적인 젠더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sup>14)</sup>

○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교육 표준안은 구시대적인 성차별로 점철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1년 뒤 교육부가 개최한 공청회에는 반동성애 단체 인사들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성적 지향' 용어 사용이 금지되고 성소수자 인권 관련한 내용이 전면 삭제된 성교육 표준안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멈춰 서 있었으며, 2022년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성소수자', '재생산', '섹슈얼리티'와 더불어 '성평등' 용어가 삭제되었다. 현재 2022년 교육과정은 보수개신교 학부모 단체들이 '성평등 도서 배제'의 근거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 2015년 6월 '대전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성평등 정책으로서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포함하며 제정되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성평등 조례가 기본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면 개정 요청했고, 결국 3개월여 만에 성소수자가 삭제된 양성평등 조례로 개정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왜곡과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이들이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를 외치며 꺾기대회를 열었다.

○ 2016년 동성애를 둘러싼 논쟁을 "사회이슈 아닌 진리 지키기 위한 영적전쟁"으로 선포한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2017년 성평등 개헌 논의 국면에서 창립한 '동성애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성평등'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킴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용어라며 '양성평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개헌특위는 국민개헌토론회에서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를 옹호하기는 커녕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반동성애-반페미니즘 혐오선동세력을 달랐다.<sup>15)</sup> 2017년 5월

12) 음선필(2022),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3(2), 88-89.

13)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장관까지 고발? 여가부 초등생 성평등 추천도서 '외설 논란' 일파만파」, 『신동아』, 2020년 9월 23일자 참조.

14) 나영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자료집, 2015년 11월 27일자, 31-42 참조.

15) 이진옥(2018), 「개헌의 젠더 트러블: 양성평등이 투쟁의 종착지가 된 성평등 개헌의 역설」, 『문화과학』 94, 147-175 참조.

문재인 촛불정부가 한기총에게 성적 지향이 포함된 '추가 (차별금지법)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 약속하며 출범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 2017년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양성평등'으로 위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보수개신교의 공격과 난동으로 파행에 이르렀다. "가정파괴 부추기는 여가부 해체하라", "젠더 교육 결사반대"가 주요 주장이었다. 직후 여성가족부는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를 혼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찬가지로 여성단체들의 비판과 반대에 직면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으로 대립할 문제"가 아니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젠더 관점이 전체적으로 정책에 녹아들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한기총을 찾아가 성평등 정책이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과 무관"하다는 점을 해명했다.

○ 2019년 발의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성별'이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차별에는 동성애도 포함된다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다. 같은 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40명이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로 규정하며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젠더 자문관' 신설을 명시하려던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고, 경남도의회는 주민발의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으며, 한동대에서는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교내 동아리 학생들에게 무더기 부당 징계를 내렸으며, 연세대에서는 인권·젠더 강좌가 필수교양에서 철회되었다.

○ 2020년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분학연)의 선동은 나다움책 회수의 기반이 되었고, 2021년에는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한다며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이른바 '페미게이트'가 열렸다.

○ 2022년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서울시교육청에게 '편향적 젠더교육'을 강요한다며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극단적 페미니즘 교육 반대, 동성애 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폐지 등 반동성애-반페미니즘 공약을 통해 혐오선동 선거의 경쟁이 펼쳐졌다.

○ 2022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성가족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표에서 '성평등' 용어를 제외했다. 2023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체계상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라는 익숙한 논리가 등장했다.

한국사회에서 불평등한 젠더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성평등 제도로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둘러싼 문제는 바로 '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여성정책으로서의 '성평등'이 거부되

었다는 점이다. 이는 위계화 된 성역할, 성별 지위, 성정체성, 성별 규범 등을 포괄하는 성차별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성평등 정치의 미래를 더욱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차별과 불평등을 발생·유지하는 구조에 대한 인식과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상향시킨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거나 평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발전’에서 ‘평등’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성별, 성정체성과 성적지향뿐만 아니라 계급, 출신 국가 및 인종, 장애 여부, 가족 형태 등 여성들의 삶에서 중첩·교차하는 속성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했다. 하지만 양성평등 개념이 채택되는 과정은 성별 불평등의 규명(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의 성별 불평등을 경험하는지 등)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문제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의 명칭이 양성평등으로 관철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별 불평등의 해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의 핵심 기반은 이분법적 젠더 규범이라는 점에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채택된 ‘양성평등’ 개념이 누구에게 어떤 평등을 실현해줄 것인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6)</sup> 그리고 정부와 의회 정치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주장하는 반동성애-반페미니즘 보수개신교 세력에 의해 ‘성평등 도서’가 불온시되고 ‘성평등’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공공도서관에서 삭제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정책, 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성소수자라는 특정한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혐오선동세력과 정치에 의해 호출되는 한, 그 현실에 맞서기 위한 정치로서 ‘양성평등’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다음책 회수 사건 이후에도 다음북클럽이 이어지고 『오늘의 어린이책』 발간을 지속해온 것처럼,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우회하려는 양성평등 전략이 아니라 성평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싸워나가는 그 동력이 성평등을 진전시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1/n 민주주의가 아닌, 차별을 일깨우는 민주주의 정치

“학교는 여러 의견이 편견 없이 공평하게 논의되고 전달되는 “공론장”(公論場)이어야 한다.”<sup>17)</sup>

이제 보수개신교 세력은 개신교 이념을 정치의 장에 온전히 관철시키려는 전략보다,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활용해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 공론장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임윤경이 ‘권리주의(right-ism)’ 혹은 ‘민원주의(complaint-ism)’라고 지칭한 바대로, 성평등 도서 배제 민원처럼 1/n의 지분

16)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행한 다음 글 참조. 몽, 「'양성평등 YES'라는 구호의 진짜 문제점」, 『오마이뉴스』, 2019년 10월 25일자. <https://omn.kr/1lf76> ; 미류, 「'양성평등'과 이별하자」, 『오마이뉴스』, 2019년 10월 31일자. <https://omn.kr/1lh6w>

17) 장동민(2020),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의 전략」, 『생명과학』 28(3), 303.

을 가지고 성교육.양성평등에 대한 보수개신교의 관점을 공적 영역에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론장 구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배제는 ‘양심적 혐오표현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여러 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이’와 ‘다양성’과 ‘공존’이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정치적 갈등, 의미투쟁의 가시화, 서로 다른 현실인식이 부딪히는 과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들의 차이가 경합하는 과정,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지만, 그동안 ‘차이’가 공론장 안에서 권력에 따라 ‘차별’의 이유나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은 쉽게 잊혀진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차별의식과 편견을 앞세운 정치인과 이에 굴복한 원칙 없는 정부에 의해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를 빼앗긴 사건이라고 규정한다.”<sup>18)</sup>

나다움책 회수 사태 당시 이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빼앗긴 것으로 문제설정을 이동시켰던 청소년인권운동의 입장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공론장에서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누가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되는가, 어떤 차이가 가시화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잘 드러낸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공론장에 평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제한했다는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특정한 소수자를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문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국사회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기보다, 그저 다양한 집단들이 의견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차이’라는 말에서 권력관계가 삭제되고, ‘다양성’이 추상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현실 자체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징후다. 현재 충남교육감의 ‘의견수렴’은 바로 이러한 공론장 안에서 비난회피 정치로 수렴되기 쉽더라도, 우리가 제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책임의 정치를 요구할 것인가이다.

“이들(조직적으로 책을 검열하는 단체)의 목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나 유색인종 등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대화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책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읽을 책과 탐구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보호되는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 Caldwell-Stone, 전미도서관협회 지적 자유 사무소 소장<sup>19)</sup>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또는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과 사서가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모든 주제를 다루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려는 노력에 저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 전미도서관협회, 도서관

18) 6개 청소년인권운동단체, 「[논평] 우리는 평등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은 성교육을 원한다 - ‘나다움어린이책’ 회수 사태, 교육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다.」, 2020년 9월 1일자.

1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eports record number of demands to censor library books and materials in 2022」, ALA(Americans Library Association) News, Wed, 03/22/2023.

<https://www.ala.org/news/press-releases/2023/03/record-book-bans-2022>

## 권리장전의 해석<sup>20)</sup>

“지식이 동성애혐오 해소의 열쇠이다(Knowledge is the key to dispelling homophobia)”

- 미국 거버 하트 도서관(Gerber Hart Library)의 사명문<sup>21)</sup>

특정한 집단에 대한 권리를 박탈할 때 훼손되는 것은 ‘보편적인 권리’다. 민주주의에서 반차별과 평등이 핵심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론장에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떤 주체 혹은 집단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왔는지를 성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반영하기 위한 공동체의 지난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은 개인의 의지나 선의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차별을 자연스러운 관행이나 상식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차별의 구조, 차별의 역사성과 시간성을 이해할 때 해소의 가능성이 열린다. 손쉬운 ‘성평등 도서’ 배제가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장소와 이해를 박탈당한 사람들로 부터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으로서 성평등 지식의 보편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현재 정치가 자임해야 하는 책임이다.

---

20) Interpretations of the Library Bill of Rights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interpretations>

21) 조금주(2015),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73.

###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안찬수(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대표/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하는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이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책이 유해도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주로 책, 독자, 도서관에 집중하여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첫 번째 질문,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지향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도서관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도서를 열람 제한, 제적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검열’(censorship)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검열이다”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 발제문의 참고자료1에 첨부하는 <새로운 검열 시대와 독서·도서관의 자유>에서 자세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 글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제재’(prior restraint)에서 ‘자기검열’(self-censorship)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민간단체의 자체 심의 ②배제 목록 작성과 배포 ③언론을 통한 이슈 증폭 ④관계 당국의 행위 ⑤사실상의 금서조치 및 변형된 형태의 검열 ⑥자기검열의 확산.)

우리나라는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검열 금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바36, 헌법재판소 누리집 <http://www.ccourt.go.kr/> 참조.)

2-2. 두 번째 질문. “도서관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지향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도서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적 및 폐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그것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며 옳지 않다”입니다.

도서관은 ‘광장’입니다.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입니다. 미국도서관협회가 1939년 「도서관 권리선언」(The Library's Bill of Rights)을 채택하게 된 계기는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때문이었습니다. 『분노의 포도』가 출판되었을 때, 이 작품은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어서 당시 지역신문은 엄청난 공격을 가했고, 의회에서는 의원이 이 소설을 탄핵하는 연설도 했습니다. 당연히 도서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수적인 정서를 지닌 지역의 도서관에서는 이 책이 부도덕하다고(또는 ‘불쾌하다’고) 열람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검열’ 행위에 대해 미국도서관협회는 적극적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내었고, 그 결과물이 「도서관 권리선언」(The Library's Bill of Rights)이었습니다.

이 선언의 3항을 보면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institution to educate for democratic liv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서관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상의 상호 교환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 개정된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에서는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에 대해 당시 미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 위원장인 프란시스 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어떠한 의견과 견해에 대해서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광장’(forum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서관이 반민주주의적인 자료를 검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지적자유 관점에서 본 우리들의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수가 싫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견해는 경청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근본적인 가치를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민주적 과정에 대한 비판정신을 새롭게 불어넣는 사상의 자유로운 전파에 의존합니다. 시민들은 독자로서 온갖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견해를 형성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 도서관과 독서의 자유가 필수적입니다. 민주주의적 여론 형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만약 공권력에 의해 지식과 정보의 원천적인 접근 금지, 특정 지식과 정보의 금지, 도서 검열, 금서목록의 작성 등의 적극적인 통제나,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막고자 예산 수립과 보조금 지

급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과 차별 취급 등의 간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3. 세 번째 질문. “좋은 책, 나쁜 책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좋은 책, 나쁜 책은 없다”입니다.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도 금서였던 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의 길을 열었다고 일컬어지는,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년경~1384)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라틴어 성서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의 사후 31년이 지난 1415년, 당시 교황과 교회는 콘스탄츠공의회를 통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판결하고 그의 저작을 불태웠으며 무덤을 파헤쳐 이른바 부관참시를 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성경』과 『아레오파기티카』 부분은, 장동석, 『금서의 재탄생』, 북바이북, 2012.을 참조했습니다.)

오직 라틴어 성경만이 아무런 오류가 없는 『성경』이며, 오직 사제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은 ‘나쁜 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어로 번역된 『성경』,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나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으로 언급할 책은 『실락원』의 시인,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의 『아레오파기티카』(Areopagitica, 1644)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언론 자유의 경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상익 옮김, 소나무, 1999년/ 전면개정판, 인간사랑, 2016년) 청교도혁명(요즘엔 잉글랜드 내전 English Civil War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의 기치를 높이 들고 찰스 1세를 제압한 의회공화파가 반혁명에 맞서 혁명을 수호한다면서 검열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을 때 집필하고 출간한 것이라는 점이 이 책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청교도혁명처럼 극심한 양극화의 시기에 의회공화파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축소하려 하자 밀턴은 실정법을 여기면서까지 스스로 ‘금서’를 출판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거칠게 비유하여 말한다면, 이런 일일지 모릅니다. 즉 A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권하여 반대파인 B정파 정치 지도자의 도서를 도서관의 장서에서 제적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자, 그런 행위는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도서관에는 B정파 정치 지도자의 책도 있어야 한다고 밀턴은 주장했다고 말입니다.

밀턴의 말입니다. “나쁜 풍속은 비단 책이 아니더라도, 제지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다른 경로를 통해 완벽하게 습득되며, 사악한 교리는 책이나 교사의 안내 없이도 썩 잘 전파되므로, 교사는 굳이 글을 쓰지 않더라도 그것을 퍼뜨릴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막을 길도 없습니다. 나는 검열이라는 교묘한 계획이 어떻게 해서 수많은 헛되고 불가능한 시도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검열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 문을 달음으로써 까마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무모한 사람과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59~60쪽)



“우리가 검열제와 금지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부당하게도 진리의 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으로 하여금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십시오.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108쪽)

세 번째로 언급할 책은 나치(Nazis)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의 저서 『나의 투쟁』(Mein Kampf)입니다. 이 발제문을 정리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검색해보니 1961년 이윤환(李潤煥)이라는 분이 번역한 책(新太陽社)부터 거의 100권에 달하는 책이 검색되어 나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여러 공공도서관에도 현재 다수 소장되어 있다고 검색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스는 독일인을 폐쇄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지옥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나치스는 ‘우리 독일’과 ‘우리 독일이 아닌 적’으로 세상을 양분화했습니다. 『나의 투쟁』은 이런 지옥도를 만들어낸 히틀러의 책입니다. ‘나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지옥도를 만들어낸 히틀러의 책을,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독자들은 읽고 토론합니다. 물론 아무도 이 책을 도서관에서 열람 제한, 제적, 폐기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투쟁』을 읽는다고, 읽고 토론한다고 그 독자가 나치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독서의 자유 선언>(1953)의 한 대목을 고쳐 써 보았습니다. “독서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평범한 개인이 비판적 판단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하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전제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장된 정치적 선전이나 오보를 판별하여, 무엇을 읽고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해로우리라 짐작되는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언론과 출판과 독서의 자유라는 유산을 희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믿습니다.”

‘평범한 개인이 비판적 판단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하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전제’는 ‘수동적 독자’가 아니라 ‘능동적 독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수동적 독자’ 즉 ‘나쁜 책’을 읽으면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독자가 아니라, ‘능동적 독자’ 즉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의 ‘나쁜 면’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면서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독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이 ‘좋은 책이야’라고 말한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쁜 책이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독자’로서 “내가 그 책을 읽고 내가 판단할 거야.”라고 말하는 독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자(讀者)A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믿음과 신념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책을 ‘나쁜 책이야’라고 말할 권리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독자(讀者)B에게 어떤 강제적 수단과 압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독자A가 ‘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독자B도 ‘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A가 읽고 자신이 ‘나쁜 책’이라고 판단했다면 독자B

도 그 책을 읽고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왜 독자A가 이 책을 ‘나쁜 책’이라고 판단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독자A에게는 독자B의 ‘책 읽을 권리’를 뺏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입니다.

3.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일반론’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들 독자(讀者)는 무엇을 해야 할까?

3-1. 첫째. 우리 국민은, 우리 시민은, 우리 독자는 책을 자유롭게 읽을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관련하여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지적된 도서 목록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들 독자는 과연 그 책이 왜 누군가가 그렇게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말하는지 스스로 찾아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백 권, 이백 권(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268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112권인 것도 있으며, 또 어떤 자료에는 117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을 모두 구입해서 읽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전국의 각종 도서관이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책’(challenged books)을 잘 갖추어 놓도록 하고, 우리 국민이, 우리 시민이, 우리 독자가 스스로 찾아 읽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독자A가 그렇게나 ‘나쁜 책’이라고 말하는데, 독자B도 그 책을 읽고 왜 독자A가 ‘나쁜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용하고 계시는 공공도서관 등에 ‘문제가 제기된 책’이 소장되어 있지 않다면 ‘책바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바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입니다. 협약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종류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각 부처의 행정자료실 포함),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참조.

<https://books.nl.go.kr/PU/main/index.do>)

3-2. 둘째. 우리 국민은, 우리 시민은, 우리 독자는 도서관이 정보와 사상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지적자유를 함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지적자유를 지키는 일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독서문화와 도서관문화의 역사에는 오랫동안 자기검열을 내재화할 수밖에 없었던 규제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흑역사가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에서도 ‘골치 아파서’ ‘문책 당하기 싫어서’ 혹은 ‘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논란이 일어난 책이나 일어난 만한 책을 제적하거나 서가에서 빼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해 각종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①자료수집의 자유 ②자료제공의 자유 ③검열을 거부하고 반대할 자유 ④도서관 자유가 침해될 때에는 이를 배제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지향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이런 책이 ‘나쁜 책’이고 또 이런 책은 ‘좋은 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독자가 어떤 책을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고 해서 그 책을 도서관에서 제적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일은,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른 독자의 알 권리, 독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일로써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의 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가들인 사서(司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도서관선정위원회를 두고 지역주민과 학생 청소년 등 이용자인 시민을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최적의 장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지향이 올바르다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원(民願)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이 또한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발 이런 형태의 민원(民願)은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길러내자는 마음은 우리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에 발표된 「2022 개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가운데 중등교육 과정의 보건 과목에서 말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책을 권하면 좋을지, 토론은 충분했던 것일까요?

- [9보03-01] 성의 개념과 성역할 및 영향요인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탐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성문화와 성의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9보03-02] 청소년기 성적 발달과 관계, 신체상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며 건강하게 관리한다.
- [9보03-03] 성적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탐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처전략을 세우고 이성 교제 시 경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 [9보03-04] 성폭력·성매개감염병 등 성 건강 위험요소를 미디어 문해력 및 성문화와 관련지어 탐색하고 건강하게 관리·옹호한다.
- [9보03-05] 임신, 피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십대의 임신과 미혼 부모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에 유익한 선택과 자원을 지지한다.
- [9보03-06] 청소년의 성 건강과 관련하여 사회적 쟁점이 있는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근거와 맥락, 고정 관념, 차별,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하여 균형 있고 평등한 성문화를 조성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2022년 12월 22일(목), 대한민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확정·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중학교 교육과정【별책 3】의 보건-선택’에서

3-3. 끝으로 ‘문제가 제기된 책’이라고 해서 각종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제적 및 폐기하려고 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즉각 취소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거듭 말씀 드리지만, 우리 국민, 우리 시민, 우리 독자는 ‘책을 읽을 권리’를 회복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 발제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회 지민규 의원이 2023년 7월 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충남 지역의 여러 도서관에 비치된 책의 내용을 거론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을 배울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2023년 7월 25일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의 보도, ‘충남 학교·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 논란’에서 인용.)

이에 대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회의록이 현재까지 충청남도의회 누리집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 인용문은 필자의 녹취 초고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회수 조치한 도서를 살펴보았는데, 낯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으로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연령대,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교육 목적에 부적절한 내용이라 생각하여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습니다. 젠더 문제와 소수자 권익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성 소수자의 공공장소 입장을 제한한다든가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제한 등 차별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간 등 여러 가지 낯 뜨거운 용어가 담긴, 아이들 성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 소수자 옹호를 내세우는 의도를 보면 일반인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http://council.chungnam.go.kr/viewer/video/minutes/3330.do?pos=5700#app>)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의 발언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떤 책을 대상으로 열람 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거듭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조치는 취소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우리 시민, 우리 독자는 그 책들을 읽을 권리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

IFLA/FAIFE

1999년 IFLA이사회 승인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UN의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지적자유를 지원하고, 지키며, 향상시키고자 한다. IFLA는 인간은 지식의 표현에 접근하며, 사상과 지적 활동을 창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IFLA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믿는다. 알 권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IFLA는 지적자유는 도서관과 정보전문가에게 있어 기본적인 책임에 속한 것임을 주장한다. IFLA는 그러므로, 도서관들과 도서관 직원들은 지적자유 원칙,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IFLA는 이러한 원칙의 승인과 현실화를 위하여 우리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IFL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도서관들은 정보, 상상력의 아이디어와 작업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지식, 사상, 그리고 문화로 향해 열린 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도서관들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평생교육,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문화적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도서관들은 지적자유 원칙의 개발과 유지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 도서관들은 지식의 표현과 지적 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증하고 조장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서관들은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도서관들은 전문적인 고려, 그러나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입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도서관 자료들과 서비스의 선택과 유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 도서관들은 어떠한 유형의 검열에 대하여도 반대하고, 자유롭게 수집하고 조직하고 유통시켜야 한다.
- 도서관들은 모든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자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인종, 신념, 성별, 나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 도서관 이용자들은 개인적인 사생활과 익명성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서들과 다

22) 안찬수대표님이 발제문과 함께 보내주신 참고자료의 목록은 ①새로운 검열 시대와 독서·도서관의 자유(2015년 구고히 토론회 발제문), ②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출판인협회의 '독서의 자유 선언', ③미국 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 선언', ④일본 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⑤국제도서관협회의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 ⑥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입니다. 지면 관계로 다 실지 못하고, ⑤와 ⑥만 실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필요하신 분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른 도서관 직원은 이용자들의 신상명세 혹은 그들이 이용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 도서관들은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공중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지적 자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도서관들에 있어 사서들과 다른 고용인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사서들과 다른 전문적인 도서관 직원들은 그들의 고용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그들의 책임들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수행에 있어 둘(고용주와 이용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가 우선권을 가진다.

이 성명은 IFLA/FAIFE에 의해 준비되었고 1999.3.25.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FLA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참고자료2]

### 도서관인 윤리선언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3.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
4.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997. 10. 30. 제정

2019. 02. 28. 개정



## 토론1

손보경(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 토론2

서현주(나다움어린이책선정위원)





## 토론3

김용실(어린이책시민연대)



## 토론4

황지영(젠더교육플랫폼 호재)



## 토론5

정재영(홍성YMCA)



## 토론6

충남교육청